



# Sweden + Korea Green Transition Alliance

Result Report: Korean Journalist Delegation Program (13-15 March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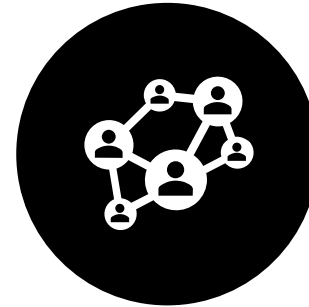


# Delegation Program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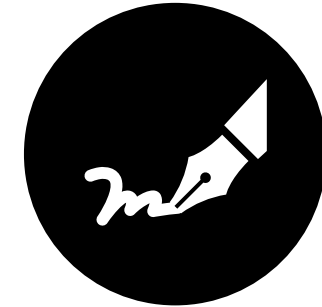
## Three media joined the program

- Good mix of newspapers and journalists from different division and focus area
  - International Division, **Chosun Ilbo**
    - The oldest daily newspaper in Korea, with a daily circulation of over 1,8million
  - Industry Team – Mobility, **Korea Economic Daily**
    - One of the most subscribed business newspapers in Korea with daily circulation of 0,5 million
  - Environmental Policy and Social Affairs at **Kyunghyang Shinmun**
    - One of major daily newspaper (liberal) with daily circulation of 0,35 million



## Ten members showcased and shared its climate contribution

- **Seven member companies and City of Stockholm** hosted site visits to their premises and **Sustainability managers from eight member companies** joined at the Roundtable discussion
- All member companies took chances to:
  - Present their 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SBTi), agreed on Paris Agreement and Korea-specific pledges
  - Share their contributions to reach climate goals and best practices applied globally and in Sweden and South Korea



## Seven news articles published

- **Seven news articles** were published on the printed and online newspaper as **Special Features** (*Kyunghyang*), **editorials** (*Chosun Ilbo*) and **article** under Corporate ESG page (*Korea Economic Daily*)
- **Six postings** uploaded on the Embassy's social media and reached over 2,500 readers
- All media covered how Sweden has achieved both GDP growth and GHG emission reduction, gaps between Sweden and South Korea's carbon neutrality targets and Swedish companies' contribution and climate adaptation solutions
- Politicians and local governments have shown interest in getting more reference and information about Sweden, the alliance, and its member companies



# Background

Sweden+Korea Green Transition Alliance\* (“the Alliance”) recently launched its Market Access Report containing how each Alliance member can contribute to South Korea's green transition. For the launch of the report and to demonstrate the successful cases of the circular city, green energy, and smart mobility presented in the Market Access Report, the Alliance invites Korean government agencies, municipalities, and journalists to Sweden.

The market access report describes how Sweden has succeeded triple helix collaboration that has resulted in 50% GDP growth, while a reduction in carbon emissions by 26% between 1990 and 2017. The industry,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need to get together to create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the Swedish cases have proved that green transition strengthens global competitiveness.

## Expectations:

- Exchange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the fields of the circular city, including green energy applications, and smart mobility
- Learn and raise awareness of Swedish successful solutions and how they can be applied to South Korea’s carbon neutrality achievements
- Further strengthen the bilateral exchange between South Korea and Sweden

\* **Sweden + Korea Green Transition Alliance** is launched together with the Embassy of Sweden, Business Sweden, the Swed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nd thirteen (now fourteen) Swedish companies in Korea to support South Korea in becoming a green carbon-neutral society by 2050.



# Day 1



13 March

10.00–11.30

**Alfa Laval**  
Global Innovation Center  
(Copenhagen, Denmark)



15.00–16.30

**Volvo Truck**  
Experience Center  
(Gothenburg, Sweden)

▲ Learned about sustainability goals and its solution applied in food & beverage industry



17.00–19.00

**KraftPowercon**  
Kraftstation in Surte  
(Surte, Sweden)



▲ Learned about its three key sustainability pillars – *eliminate waste, minimize and optimize* – in reaching the climate goal and its journey globally and in Korea

◀ Learned its electrification strategy by 2045 and took test-drive of electric trucks



# Day 2



14 March

10.00–11.30

**Roundtable Meeting**  
with Sustainability Managers  
(Stockholm, Sweden)



▲ Sustainability managers from member companies shared its Science-based targets, contribution and challenges toward carbon neutrality

12.00–13.00

**SF Marina**  
Floating Village  
(Stockholm, Sweden)



▲ Site visit to floating residential area to showcase its solution and application

13.30–15.00

**Atlas Copco**  
Showroom & the Mining  
(Nacka, Sweden)



▲ Presented its industrial technique applied in th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site, its sustainability goals and contribution

15.30-17.30

**Scania**  
Scania Museum  
(Södertälje, Sweden)



▲ Introduced Scania's sustainability strategy and its plan to electromobility



# Day 3



15 March

9.00-11.15

**Stockholm City & Envac**  
Royal Seaport  
(Stockholm, Sweden)



▲ City of Stockholm explains Royal Seaport initiative and how it applied sustainable city solutions



▲ Group Photo after the Roundtable Meeting with the Sustainability Managers from the member companies



▲ Envac speaks about the waste collection system and its application in the smart city



▲ In front of Envac's waste collection site in the Royal Seaport



# News stories in March 2023

## '트럭·중장비=反환경'은 옛말 전기화 속도 내는 스웨덴 기업



A34 조선일보 103

친환경으로 '말뼌의 농뿔' 국  
에퍼코, 광산장비 전기화 나  
다질 대선 전기 장비로 채굴  
'트럭 시장 강자' 볼보의 변신  
지난해부터 전기트럭 양산



서유근  
국재부

중장비와 트럭은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인 '현장'과 '거리'가 나  
온 산업을 많이 내놓는 차를 연  
로 구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에서도 최근 들어 변화의 바람이  
있다. 친환경은 볼보트럭, 스카니아  
트라스코프 등의 트럭 장비 회사  
유한 스웨덴이다. 관련 업계에서  
되는 '농뿔'을 몰락했던 스웨덴이  
화 바람을 타고 제조업 패권을 다  
변 도전장을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  
"확고"와 "오일 광산업도 전통화  
글로벌 광산업체 글렌코어가 운영  
사후주 권리관상 이곳에서는 1차  
(당비 전액에 대한 십이 달된 장  
부지전환의 채굴한 광물을 퍼 올린  
지만 이 모든다 탄소 배출하지  
음이 심하지도 않다. 100% 전기 배  
가 동력원이기 때문이다. 이 전기  
장비가 탄생한 곳은 스웨덴이다.  
덴 기업 에피코어 다들 엔지니어  
자면 광산장비를 최초로 전기화했다

지난 2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남 에피코어 관계자는 "본래 광산업  
경 논란이 불거졌던 산업이지만 1  
1년다. 트럭 등 주요 광산장비를 전  
하면서 보다 친환경적으로 변화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 할렌베리 가운이 150여  
합업한 산업 장비회사 아르미스트  
도발리다만도 제품 등 현대 산업의  
경 조력자로 통한다. 반도제 공장

## 모든 건물에 녹지 의무화... 가물·홍수 대비 "자연이 일하도록"



2023년 3월 28일 (화) 06면 기획  
2023년 3월 28일 (화) 06면 기획

### 녹색전환 선진국, 스웨덴을 가다

● 기업에 보는 탄소중립

높이 4m, 너비 2.55m, 길이 16.5m, 지  
면 13평(약 450㎡) 규모의 1999년 말  
15000㎡를 2020년까지 1366호  
표다. 현재까지 지 3166호  
표하고 있다. 지난 16  
표는 계획도시각기 주  
생해서 부리는 관에 사다 한다."  
이해하고 그렇게 놓아  
로 책했다. 핵심은 상승  
났다. 본 안에 생플  
달라는 '5분도' 개념도

기업에 보는 탄소중립

나라	2019년 대비 20%	2020년 대비 20%	2021년 대비 20%
스웨덴	2%	4%	4%
스위스	1%	4%	4%
프랑스	1%	4%	4%
독일	1%	4%	4%
영국	1%	4%	4%

기 등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매립지로 옮겨져 매  
장되는 양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한다. 지역에서 생  
기는 쓰레기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고 에너지로 만드는 자  
원 순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스웨덴에선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과 관련한 최  
선 기술을 개발, 도입해 최종 폐기를 중 최종적으로 매립지로 보  
내는 비율이 제 1%가 되지 않는다. 매립에 대한 부담이 적고  
에너지까지 얻다 보니 영국, 덴마크 등에서 2030년에만 쓰레  
기 2700만톤을 수입해 39400만달러(약 5000억원)를 벌어들였  
다. 심지어 쓰레기 보유량에 비해 소각 처리 능력이 더 커서 보  
다 많은 쓰레기 수입을 원했을 정도인 때도 있었다고 한다.  
포화하는 매립지 문제를 수년째 해결책 없이 지역 간 갈등  
만 낚는 한국으로서선 부럽고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등이 이용되는 수도권 3-1 매립지는 이  
르면 2025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대체지  
선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재처리 환경부가 지자체에 특별지  
원금 2500여 원 등 막대한 혜택을 내걸었지만 대체지 분석은  
수모로 돌아갔다. 소각장 문제도 여전하다. 서울의 경우 기존  
47(48%)에 존재하는 소각장 외 추가 건립이 불가피하지만 여  
는 지역도 원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기존 4구에서도 타 지역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반발이 커진 상황이다.  
매립지와 소각장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다. 지  
더라도 잠시뿐이다. 처리 용량이 부족해지는 미래에 같은 문  
제를 가지고 갈등이 벌어질 일은 볼 바로 변할 일이다. 더 이  
상 경제적 피해를 견뎌나도 없던 산업을 타 지역 쓰레기까지 처  
리하는 사안을 살펴봐도 기반을 갖지 않고 단순히 남비 현상  
으로만 반발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걸 정부  
'지자체-주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현재 당장 급한 매립지, 소각장을 마련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  
만 반비 예상되는 미래에 고려할 때 스웨덴처럼 쓰레기를 수  
입하는 것까지 못하더라도 원형 복구처럼 지역에서 나는 스  
레기를 지역에서 처리하고,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최  
선 기술 도입을 향시라도 빨리 검토하는 게 경제·사회적으로  
이로운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국가적  
과제를 이루는 데도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다.

## 모든 건물에 녹지 의무화... 가물·홍수 대비 "자연이 일하도록"



2023년 4월 5일 (수) 08면 기획

### 볼보 "7년 내 트럭 절반 전기차로... 다른 나라에 가능성 제시"



2023년 3월 28일 (화) 01면 종합

### 녹색전환 선진국, 스웨덴을 가다 ● 기업이 보는 탄소중립

## 탄소발자국 줄이며 '기업 생존의 길' 정주행

탄소중립은 탄소(온실가스)를 배출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이다. 온실  
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불  
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흡수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  
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탄소중립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  
니다. 어떻게든 '가야 할 길'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이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2030년까지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순 배출량을 40  
%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목표를  
더 강화할 수는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  
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  
업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준의 2018년 대비 14.5%에서 11.4%  
로 줄였다. 산업계의 부담이 너무 크다  
는 이유였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다. '녹색전환 선진  
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1990년부터  
2018년 총배출량 대비 순 배출량을 40

## 스웨덴 '녹색 일자리' 26%로 OECD 국가 중 최고... 민간 협력으로 남부 노동자 불균형도 해소



2023년 3월 28일 (화) 06면 기획

### 물 위에 지어진 마을, '해수면 상승'의 적응 수단으로 뜰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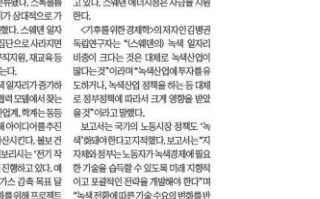
2023년 3월 28일 (화) 01면 종합

### 녹색전환 선진국, 스웨덴을 가다 ● 기업이 보는 탄소중립

## 탄소발자국 줄이며 '기업 생존의 길' 정주행

탄소중립은 탄소(온실가스)를 배출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이다. 온실  
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불  
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흡수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  
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탄소중립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  
니다. 어떻게든 '가야 할 길'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이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2030년까지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순 배출량을 40

## 스웨덴 '녹색 일자리' 26%로 OECD 국가 중 최고... 민간 협력으로 남부 노동자 불균형도 해소



2023년 3월 28일 (화) 06면 기획

### 물 위에 지어진 마을, '해수면 상승'의 적응 수단으로 뜰까



2023년 3월 28일 (화) 01면 종합

### 녹색전환 선진국, 스웨덴을 가다 ● 기업이 보는 탄소중립

## 탄소발자국 줄이며 '기업 생존의 길' 정주행

탄소중립은 탄소(온실가스)를 배출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이다. 온실  
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불  
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흡수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  
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탄소중립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  
니다. 어떻게든 '가야 할 길'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이를 것이라고 공언했다. 2030년까지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순 배출량을 40



THE SWEDISH TRADE & INVEST COUNCIL

---